

“엄혹의 시대 보여준 용기... 그는 곧 광주”

“은 산천이 우리러본 인물로 호남을 넘어 한 시대의 어른이었다”, “홍남순이 곧 무등산이요 광주였고, 무등산과 광주가 곧 홍남순이었다.”

타계 10주기를 맞는 2016년 10월 현재는 물론 홍 변호사 생전에도 그와 교류했던 인물들은 한결같이 선생을 “시대의 의인이자 큰 어른”이라는 평가를 내리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불편할 지언정 정직한 삶을 택했고 일

평생 그가 배우고 아는대로 삶을 살아온 실천하는 지식인이라 불외와는 결코 타협할 줄 모르는 투사의 삶을 일평생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홍 변호사가 숨을 거두기 전 지인들이 펴낸 ‘영원한 재야, 대인 홍남순 평전’을 참고하고 생전 그와 친분이 두터웠던 인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홍 변호사의 삶을 살펴본다.



義人 홍남순
타계 10주기 되살아나는 광주정신

지인들이 본 홍남순

독재정권과 맞선 의인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1970~1980년 대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을 너무도 잘 감당해 내시면서 사셨던 분이다.



박정희 정권이고 전두환 정권이고 그 엄혹했던 시국에 아무도 올바른 주장이나 옳은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홍 변호사님은 무서운 용기를 보여주시며 싸우셨다.

70세의 나이로 5·18과 관련해 옥살이도 하시고 ‘광주 5·18 민주혁명 위령탑 건립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위원장에 추대돼 전국은 물론 해외에서 기금을 모으던 일들은 당시 홍 변호사님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1975년 의문의 죽음을 당하기 직전 광주를 찾은 장준하(가운데) 선생과 광주시 동구 공동 자택서 함께한 홍남순(오른쪽) 변호사.



지난 1975년 미국 망명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김대중 선생의 동교동 자택을 방문한 홍남순 변호사.



홍남순(오른쪽에서 두번째) 변호사가 지난 1976년 서울 안국동 윤보선(가운데) 전 대통령 덕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단한 배짱 ‘대인 품모’

송기숙 전남대 명예교수

홍남순 변호사의 고된 논쟁집에 ‘대인 홍남순’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바 있다. 제가 사람을 잘 아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드는데 한가지가 그 사람과 화투를 쳐보는 것, 또 한가지는 그 사람과 같이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것이다.



두 가지 일 중 한 가지만 함께해도 금방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그런데 홍 변호사님은 감방에서 갖은 협박과 구타 속에서도 기죽지 않으셨고 아무튼 대단한 배짱을 보여주셨다.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대인다운 품모를 항상 잃지 않으셨다.

5·18피해자 어루만져

안성례 전 오월 어머니집 관장

항상 5·18민주항쟁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해주셨던 분으로 기억한다. 전두환의 계엄군이 시민들을 상대로 만행을 저질렀을 당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앞장섰고 항쟁 이후에는 5·18 피해자는 물론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애쓰셨다. 5·18 진상규명은 물론 위령탑 건립까지 홍 변호사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개인적으로 남편 명예노군 전남대 교수가 5·18 관련 수감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도 저희에게 큰 힘이 해주셨다. 오월 가족의 한 사람으로 항상 깊이 감사 드린다.

대쪽 같고 호랑이 같아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호남이 낳은 의인이자 시대가 낳은 의인이다. 장준하, 함석헌, 문익환, 김대중, 김영삼 등 민주인사들과 교류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이 땅의 민주화를 앞당긴 분이다. 워낙 대쪽같고 호랑이 같은 분이셔서 일각에선 권위적이었던 평가를 내리는 인사들이 있지만, 이는 엄혹했던 박정희 유신시절과 전두환 정권 당시의 선생의 활약을 제대로 모르고 내린 판단이라 생각한다. 누가 일평생 한눈팔지 않고 목숨을 내걸어 시국사건 변론을 맡으며 독재정권과 맞서 싸웠는가. 변호사, 판사를 지낸 민주인사로 청빈한 삶을 유지해온 인물이 흔한 것도 아니다.



논어 보며 생각한 바 실천

이희주 교수(둘째 며느리)

결혼 후 얼마 안 돼 집 앞 가게에서 과일을 산 적이 있었다. 아버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알뜰하게 보이려고 값을 깎아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기대와 달리 아버님은 안색이 좋지 않으셨다. 그러곤 “가게에서 물건값 깎지 마라,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할 게 아니냐”고 하셨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아버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장성한 아들들에게 항상 당부하신 말씀도 있었다. “신중을 기해서 사람을 고통하고 고통한 사람은 그만두게 해서는 안돼!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그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면 말이시, 그런 짓거리 하면 못써!” 그리고 항상 논어를 가까이 두고 보셨고 꼭 생각한 바를 실천하셨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국민의당, 더민주 ‘호남 러시’에 곤혹

더민주 호남특위 김현미·김태년 배치에

광역권 최우선 현안 예산 반영 공약 검토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특위 구성 등 ‘호남 러시’에 국민의당이 내색하지는 않지만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지역구 의원 대부분이 호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더민주에 맞서 호남 특위를 구성하기도 그렇고 구성한다면 ‘호남당’의 프레임에 갇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민주의 호남 러시를 그냥 바라볼 수만은 없어 예산 국회를 앞두고 전국 시도당을 통해 광역권 최우선 현안 사업 예산 반영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호남 지역 현안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촘촘하게 예산 반영 전략을 세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달 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는 대로 호남을 찾아 지역 현안 해결의 최일선에 서겠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호남이 뿌리이자 당 자체가 호남 특위 성격을 띠고 있다”며 “특위 구성 등 인위적인 방법보다는 지역구 의원들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의 호남 특위에 김현미 예결위원

장과 김태년 예결위 간사는 물론 윤호중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문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전해철 최고위원 등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김현미 위원장(경기 고양 정)의 정을 출신이며 김태년 의원(성남시 수정구)은 순천 출신, 전 최고위원(경기 안산 상록 갑)은 목포가 고향이다. 이는 예산 편성과 정책에서의 칼자루를 쥔 핵심 인사들을 호남 특위에 포진시키면서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과의 호남 주도권 경쟁에서 기선을 제압하는 한편, 새누리당의 사진정책을 막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더민주의 이와 함께 호남 특위의 명칭을 ‘호남 비전 위원회’로 변경할 방침이다. 당내에 여러 특위가 운영되고 있어 차별성이 없고 일시적 기구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편, 호남 특위에 지역 인사 참여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대부분의 명망가들이 더민주의 호남 특위 참여 권유를 고사, 아직도 냉랭한 지역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교문위, 백남기 사인 외인사·병사 놓고 충돌

미방위, 세월호 참사 靑 보도통제 의혹 공방

국감 현장

국회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농민운동가 백남기씨 사망 사건의 사인과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 KBS 보도 외압 의혹 등이 쟁점이 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날 국립대학과 국립대병원 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백씨의 사인을 ‘외인사’로 봐야 함에도 서울대병원과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가 이를 ‘병사’로 기록한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일반인인 내가 봐도 외인사가 분명하다.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는 외인사라고 하는데 왜 병원장과 주치의만 병사를 고집하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망진단서와 진료 기록에 절차적,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맞섰다. 백남기씨 주치의인 서울대의대 백선하 교수가 “사망진단서에서 사인을 변경할 생각이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변경할 생각은) 없다”면서 “소신껏 임했다. 어떤 외부의 압력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이날 서울시 국감에서

는 박 시장이 최근 시위 진압용 살수차에 물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한 방침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새누리당 의원은 “박 시장의 방침은 시의 소유물을 사유화했다는 것으로 헌법 법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박 시장과 서울시는 불법 시위 대응을 위한 중앙 정부의 법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민주 의원들은 “서울시장은 서울시 소방을 책임진 총책임자로 당연히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이날 한 국방송공사(KBS) 국감에서도 여야는 청와대의 보도 외압 의혹을 포함한 방송 공정성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파행했다.

더민주 유승희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새누리당 이경현 대표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언급하며 “김시종 전 보도국장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KBS는 자체 진상 조사나 실태 조사는 안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고대영 사장은 “쌍방간에 얘기한 것에 대해서 조사할 내용도 아니고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못 미친 것으로 안다”면서 “또 이 사안이 검찰 수사 중인데 KBS가 조사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맞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TAEYOUNG 21 HOSPITAL

태영21 병원

인공신장센터 **오픈**

9월 1일

홈페이지 | www.ty21-endo.com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신장실 | 직통
070-4165-7573

광주신세계백화점 건너편(국민은행 2F)

운암동

광천사거리 → 광주천변로 →

유스퀘어 터미널 신세계 백화점 태영21병원 백운동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암로 392(월곡2동 679-3)